

12

글쓰기의 윤리

이 장에서는 대학에서 글을 쓸 때 지켜야 할 윤리의 문제를 다룬다. 먼저, 학습 활동의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정직성의 원칙을 살펴본다. 그리고 표절이란 무엇이며, 왜 표절을 해서는 안 되는지 알아본다. 아울러 부정확한 인용의 사례를 검토한다.

연구와 글쓰기의 윤리

선행 연구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창의성도 없다. 학문 활동에서 창의성이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방식으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우면서도 중요한 학문적 성취는 모두 선행 연구를 잘 이해하고 활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지식을 형성하고 교류하는 과정에는 엄격한 윤리와 정직한 학습 태도가 필요하다. 자신과 타인의 의견이나 연구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그리고 타인의 성과를 훔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글을 쓸 때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제시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고 더 많은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대학에서 공부하고 글을 쓸 때 지켜야 할 정직성의 원칙

연구와 글쓰기의 정직성이라는 원칙은 첫 수업에서 마지막 수업까지, 읽기 과제에서 시험, 보고서, 조 활동, 실험에 이르기까지 학습 활동의 모든 방면에 적용된다.

● 시험을 볼 때 지켜야 할 정직성의 원칙

- 수업시간에 시험을 볼 때,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노트, 책, 논문 또는 전자 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
- 온라인으로 시험을 볼 때,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책, 논문, 노트, 그리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답을 베끼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는 없다. 어떤 자료를 활용하든지, 답은 반드시 자기

자신의 언어로 쓰고 자료의 출처를 정확히 제시해야 한다.

● 보고서를 작성할 때 지켜야 할 정직성의 원칙

- 다른 사람의 글에서 도움을 받았을 때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 다른 사람의 단어나 문장을 사용할 때에는 그것들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인용부호로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출처도 정확히 제시해야 한다.
- 다른 사람의 단어나 문장을 바꿔 인용할 때에는 그 사람의 문체를 모방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때에도 출처를 밝혀야 한다.
- 다른 사람의 글을 자기 것처럼 보이게 해서는 안 된다.
- 같은 보고서를 서로 다른 수업에 제출해서는 안 된다.
- 보고서는 사지 말고, 팔지 말고, 빌려서도 안 된다. 보고서는 반드시 스스로 써야 한다.

● 조 활동에서 지켜야 할 정직성의 원칙

- 다른 조원이 발표한 내용이나 공동의 결과물을 자신의 것으로 내놓아서는 안 된다.
- 조 활동에서는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고 서로 협력해야 한다.

● 실험실에서 지켜야 할 정직성의 원칙

- 동료와 함께 실험을 진행할 수 있고 작업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그러나 실험의 전 과정과 결과는 반드시 스스로 정리하고 기록해야 한다.
-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자신의 데이터만을 사용하여 실험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 데이터를 베끼거나 조작해서는 안 된다.

- 좋지 않은 결과를 생략하거나 숨기지 말고 노트에 기록해야 한다.
- 실험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도 기록해야 한다. 또 실험이 실패한 경우에도 그 결과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 가정과 모순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정직하게 밝혀야 한다.

연습 문제

01

위의 경우 이외의 학습 활동에서 학생들이 지켜야 할 정직성의 원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자.

표절과 부정확한 인용

■ 표절의 정의

‘표절(剽竊)’은 ‘빼앗다’라는 뜻을 가진 ‘剽’와 ‘몰래 훔치다’라는 뜻을 가진 ‘竊’을 합한 말로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나 다른 사람이 쓴 개념과 표현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사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영어인 ‘plagiarism’은 유괴(kidnapping)를 뜻하는 라틴어 ‘plagiarius’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표절은 의도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표절에는 의도하

지 않은 베끼기도 포함된다. 순전히 실수로 행해진 ‘우연한 표절’ 역시 범죄 행위이다. 영상 이미지, 건축 초안, 데이터베이스, 그래프, 통계표, 인터뷰나 대화 중에 한 말 그리고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들을 인용 표시 없이 사용한다면 이 역시 표절이다.

표절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글 전부를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한 경우
- 다른 사람의 글의 일부를 가져와 자신의 것처럼 제시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가져와 자신의 것처럼 제시한 경우
- 다른 사람의 글에 사용된 중요한 개념이나 표현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경우
- 다른 사람의 말을 편집하거나 표현을 바꾸어 자신의 것처럼 서술한 경우
-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인 지식이 아닌 사실, 통계, 그 밖의 증거자료를 출처를 제시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 그림이나 표, 사진 등을 허락 없이 사용한 경우

부정확한 인용

부정확한 인용은 표절이 될 수 있다. 아래의 표는 최인훈이 『광장』에서 쓴 한 문장을 가지고 부정확한 인용이 어떤 경우 표절이 되는지를 보여준 것이다.

“싸움이 멎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명준은 깊은 구렁에 빠졌다.”

(최인훈, 『광장』, 문학과지성사, 1976, 176쪽.)

아래 표에서는 주(註) 1)로 표시했다.

1. 명백한 표절

표절	해설
① 싸움이 멎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명준은 깊은 구렁에 빠졌다. (출처 표시 없음)	① 인용부호와 정확한 출처 제시 없이 최인훈이 쓴 문장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은 표절이다.
② 싸움이 멎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명준은 깊은 구렁에 빠졌다. ¹⁾	② 자료의 출처는 제시했지만 인용부호를 사용해서 인용문임을 표시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장도 표절이다.
▶ 올바르게 고친 표현 : “싸움이 멎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명준은 깊은 구렁에 빠졌다.” ¹⁾	
③ 싸움이 그쳤다는 소식을 듣고 이명준은 깊은 구렁에 빠졌다. (출처 표시 없음)	③ 최인훈의 표현을 그대로 옮긴 것은 아니지만, 그 것과 매우 비슷하다. 이는 표절이다. 작가의 말을 모방하지 않으면서도 원래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바꿔 인용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물론 출처를 제시해야 한다.
▶ 올바르게 고친 표현 : 전쟁이 종단되었다는 소식에 이명준은 중대한 고민에 맞닥뜨렸다. ¹⁾	
④ 이명준은 싸움이 멎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출처 표시 없음)	④ 그대로 옮겨 쓴 부분은 인용부호 안에 넣어 인용 문임을 표시하고 출처를 제시해야 한다.
▶ 올바르게 고친 표현 : 최인훈에 따르면, 명준은 “싸움이 멎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¹⁾	
▶ 올바르게 고친 표현 : 이명준은 “싸움이 멎었다”는 사실을 접하고 심각한 내적 갈등에 휩싸인 듯 보였다. ¹⁾	
⑤ 이명준은 깊은 구렁에 빠졌다. (출처 표시 없음)	⑤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작가의 표현을 그대로 옮겨 온 부분은 인용으로 표시하고 출처를 제시해야 한다. 둘째, 이명준이 깊은 구렁에 빠졌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작가의 판단이다.
▶ 올바르게 고친 표현 : 최인훈은 “명준은 깊은 구렁에 빠졌다.”고 썼다. ¹⁾	
▶ 올바르게 고친 표현 : 최인훈에 따르면, 휴전 소식을 접한 이명준은 “깊은 구렁”에 떨어진 듯 보였다. ¹⁾	

2. 부정확한 인용

부정확한 인용	해설
① 싸움이 멎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명준은 "깊은 구렁"에 빠진 듯 보였다. ¹⁾	① 출처 표시가 있지만, 최인훈이 쓴 단어들 가운데 일부가 인용부호 밖에 놓여 있다. 이렇게 하면 그 단어들을 학생 자신이 쓴 것으로 제시한 셈이다.
② "종전 소식을 들었을 때, 명준은 큰 슬픔을 느꼈다." ¹⁾	② 두 가지 면에서 부정확하다. 첫째, 최인훈에 따르면, 이명준은 '큰 슬픔'이 아니라 "깊은 구렁"에 빠졌다. 둘째, 이명준은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니라 멈췄다는 소식을 들었다. '큰 슬픔'이나 '종전'이라는 표현이 인용이 아니라 자신의 해석이라면, 인용부호를 벗겨야 하고 그 해석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제시해야 한다.
③ 이명준은 뜻 모를 "깊은 구렁에 빠졌다." ¹⁾	③ 인용은 정확히 표시했다. 그러나 그 앞의 단어 ('뜻 모를')는 최인훈의 원래 의도를 훼손한다. 이는 표절은 아니지만, 자료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뜻 모를'이라는 표현이 자신의 해석이라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제시해야 한다.
▶ 위의 경우들은 표절은 아니지만 부정확한 인용이다. 사소한 위반이지만, 이러한 실수가 반복되고 그것들이 이 중대한 오해를 낳는다면, 나아가 그것이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행위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이는 학문적 사기 행위로 여겨질 수 있다.	

인용할 때마다 각주에서 동일한 출처를 반복해서 제시해 줄 필요는 없다.
맨 처음 인용했을 때 각주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적어 주고 본문에서 간단히 팔호 안에 쪽수를 적으면 된다.

이 글은 최인훈, 『광장』(문학과지성사, 1976)을 텍스트로 하였다. 인용한 부분은 본문의 팔호 안에 쪽수를 표시하였다.

연습 문제

02

아래 글은 『문학의 새로운 이해』라는 문학이론 입문서 서론의 일부로서 이 책을 엮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학관을 제시한 부분이다. 1)~5)는 학생들이 아래 글의 일부를 인용하거나 표현을 바꾸어 자신의 보고서에 사용한 것이다. 표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표시해 보자.

우선, 질문의 기본 형태가 바뀌었다. 더 이상 '문학이란 무엇인가'라고 우리는 묻지 않는다. 그러한 방식의 질문이 문학의 자율성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한 것임은 이미 지적한 바이다. 그동안의 문학적 성찰의 결과로서, 문학은 항구적인 것이 아니라 근대 이후 태어난 역사적인 개념이며, 문학의 실체는 관점에 따라 계속 변화하고, 문학이 단단한 자족체라는 관점은 초기 자본주의로부터 20세기 초엽 사이에 생성되어 발전해 온 하나의 특이한 관점일 뿐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문학은 더 이상 자족체가 아니다. 그것은 빛처럼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다. 한 작품에 대한 독서는 이미 그 자체로서 작품의 변형이라고 우리는 말했다. 작품의 문학성을 손아귀에 잡는 순간, 그것은 중심을 작품으로부터 작품과 손 사이로 이동시키면서 새처럼 빠져나간다. 문학은 따라서 작가와 작품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작가와 작품과 독자 사이에 있다. 좀 더 염밀하게 말하면, 문학은, 그것의 생산과 유통과 수용의 끝없는 원활 체계 속을 유동하는 예측 불가능한 기류이다. 문학은 물체가 아니라 활동하는 자장(磁場)인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문학의 정의를 묻는 대신에 그것의 존재론적인 국면을 묻기로 하였다. 그 존재론적 장 안에서 문학은 특별한 쓰임새를 갖고 특정한 대리인을 임부로 하여 태어나 자가 생산 설비를 갖추게 되고, 새로운 구성원들을 충원하게 되며, 다시 구성원들의 관계를 변화시키게 되었다. 그 과정은 끊임없고, 나누어질 수 없는 순환 체계를 이룬다.

(김인환·성민엽·정과리 엮음, 『문학의 새로운 이해』, 문학과지성사, 1996, ix~x쪽.)

- 『문학의 새로운 이해』에서 엮은이들은 문학의 정의를 묻는 대신에 그것의 존재론적인 국면을 묻기로 하였다.
- 문학의 항구적인 본질을 연구하는 대신, 그것의 존재론적 국면을 연구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각이 등장했다.
- 엮은이들은 더 이상 문학이란 무엇인가라고 묻지 않는다.
- 문학은 정형화할 수 없는 창조적 활동의 장이며, 이로써 문학은 다양한 요소들이 교류하는 개방적·비실재적 체계로 이해된다. 이러한 인식이 문학에 대한 연구 주제를 변화시켰다. 이제 탐구해야 할 것은 문학의 정의가 아니라 그것의 존재론적 조건이다.
- 문학은 실체가 없는, 그 바깥의 다양한 활동 영역들과 교류하는 열린 체계이다. 따라서 문학은 무엇인가라는 식의 본질 중심적 탐구보다는 그것의 존재 조건에 대한 개방적 탐구가 필요하다. 이제 문학은 그 바깥에 있는 다른 사회적 활동 영역들, 즉 교육, 문화, 산업, 유통 같은 다양한 제도나 기관들과의 상호작용이라는 시각에서 연구되어야 한다.

연습 문제

03

다른 수업에서 쓴 글 한 편을 아래 방법에 따라 점검하고 고쳐 보자.

바르게 인용하는 방법

- 만약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사용하고 싶다면, 그것을 인용부호 안에 넣고 출처를 제시하라.
- 만약 다른 사람의 말을 바꿔 인용한다면, 그 말을 모방하지 말고 자신의 말을 사용하라. 출처를 제시하는 것을 잊지 마라.
- 만약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기대거나 그것에 대해 말한다면, 그에 대해 동의하는 안 하든 아이디어의 창안자에게 그 공로를 돌려라.

tip

미국의 닷트머스 대학에서는 표절의 세 가지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노골적인 인용(direct quotation)이나 단어를 그대로 베끼는(번역하는) 것(word for word transcription).
- 짜깁기하거나 섞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mosaic or mixing paraphrase)과 승인 받지 않은 인용(unacknowledged quotation).
- 아이디어의 이용, 그리고 혹은 바꾸기(paraphrase and/or use of ideas).

표절을 피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

표절은 대학생들의 보고서에도 종종 나타난다. 교수와 동료 학생들을 속이려는 의도에서 표절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연한 표절이 더 많을 것이다. 이는 부주의에 의한, 의도하지 않은 사고일 수도 있다. 우연한 표절을 예방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의도하지 않은 표절을 피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

- 자료를 읽을 때 조심스럽게 그리고 꼼꼼히 노트 정리를 해야 한다. 책을 읽으면서 기록을 부정확하게 하면 자기의 말과 원래 글쓴이의 말을 구분할 수 없게 된다.
- 표절을 피하려면 자료 조사의 원칙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한 예로, 자료의 출처를 자신이 직접 확인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제시한 것을 그대로

배끼는 것은 불성실하고 부주의한 행위이다.

- 표절이나, 자료의 출처 제시에서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연구하는 분야에 서 어떤 성과들이 축적되어 있는가에 대해 분명하고 풍부한 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 인터넷 자료의 출처를 생략하는 일이 많다. 그러나 인터넷 상의 모든 자료는 참조나 인용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 인용의 원칙이나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만 글을 쓸 때 자료의 왜곡이나 표절을 피할 수 있다.

tip

자료 정리 및 기록 방법

- 글쓴이, 제목, 출판 정보 등 필수적인 서지 사항을 정확히 기록한다. 특히 인터넷에서 가져온 자료에 대해서는, 후에 출처를 제시하거나 정보를 더 텁색하기 위해 되돌아가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용한 웹 페이지의 주소(URL)를 옮겨두어야 한다.
- 직접 인용할 가치가 있는 부분은 원래의 표현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어 두고, 출처도 쪽 수까지 정확하게 기록한다.
- 책이나 논문에서 직접 인용한 부분, 간접 인용한 부분, 요약하거나 자신의 표현으로 바꿔 쓴 부분, 그리고 자신의 해석이나 논평 등을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연습 문제

04

〈저작권법〉과 〈저작권 조약〉이 창작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복제와 표절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항들을 마련해 놓고 있는지 조사해 보자.

연습 문제

05

최근 국내외에서 발생한 표절 사건에서 표절로 의심을 받거나 판정받은 이유를 조사해 보자.

참고문헌

- 신형기 외, 『모든 사람을 위한 과학 글쓰기』, 사이언스북스, 2006.
- Caroline Eisner, 「글쓰기 센터의 역할과 대학 글쓰기 교육 방법」(부록), 『대학 글쓰기 교육 모형과 방법』(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 한국 언어·문화·문화 국제인력양성사업단, 2007. 2.
- Charles Lipson, *Doing Honest Work in College : How to Prepare Citations, Avoid Plagiarism, and Achieve Real Academic Succes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4.
- Martha Davis, *Scientific Papers and Presentations*, Academic Press, 2002.